

World Gardens Gibbs Gardens

USA

Gibbs  
Gardens  
Atlanta

# 자연에 그린 풍경화 기브스 정원

짐 기브스는 15년간 세계 유명 정원을 돌아본 뒤에야 색색의 꽃 무리로 이뤄진 자신의 정원을 설계할 수 있었다.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77편, '기브스 정원'.

## Painted Hills

After 15 years touring the world's finest gardens, Jim Gibbs designed his own to comprise the best of all he'd seen. The result is a rainbow of colors that begins with 20 million daffodils each spring.





미국 조지아주의 북쪽 산맥은 봄이 일찍 찾아온다. 그 가운데서도 블루리지산맥 기슭에 약 1.2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기브스 정원’에는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활기가 넘친다.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것은 산기슭을 온통 황금빛과 크림색으로 물들이는 2000만 송이에 달하는 수선화다. 늦게 핀 꽃은 4월 중순까지 피어 있어 다른 꽃들과 아름다움을 다툰다. 꽃산딸나무, 퀸스나무, 꽃사과나무, 그리고 사방에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는 진달래와 철쭉, 양치식물 틈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칼미아 군락이 그 경쟁자다.

정원 곳곳의 다리와 개울을 따라 산책로가 굽이굽이 나 있어, 굽이를 돌 때마다 눈부신 풍경이 펼쳐진다. 잔잔한 연못에 비친 나무와 줄줄이 늘어선 여러해살이풀, 나뭇의 균형미를 갖춘 비대칭적인 풍경을 감상하노라면 마치 그림 속을 걷는 기분이 든다. “즐거움이 가득한 정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빈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려 넣는 화가라면, 식물은 각자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의 요소라고 할까요?” 전 세계 유명 정원을 돌아보고 연구한 뒤 자신의 정원을 설계한 짐 기브스의 설명이다. “적당한 부지를 찾고 나면 30년은 족히 걸릴 일이라 예상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리고 싶은 정원의 요건에 걸맞은 부지를 찾는 게 관건이었죠.”

1980년에 기브스는 조지아주의 시골 마을인 볼그라운드에서 그런 장소를 찾아냈다. 애틀랜타에서 북쪽으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볼그라운드는 2000명 남짓한 주민이 사는 소도시로, 지형상 지하수에서 물을 얻고 평균 해발 300여 미터의 고지대에 성숙림(成熟林)이 자리 잡은, 기브스가 찾던 딱 그 장소였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기브스는 각국 정원에서 얻은 영감을 정원 설계에 응용했다. 아름다운 수련 연못 위로 등나무 덩굴이 드리운 다리는 파리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의 정원’을 참조한 것이다. 바위와 연못, 담, 석등, 지그재그형 다리, 단풍나무와 벚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16만 2000제곱미터의 ‘쓰키야마 정원’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일본식 정원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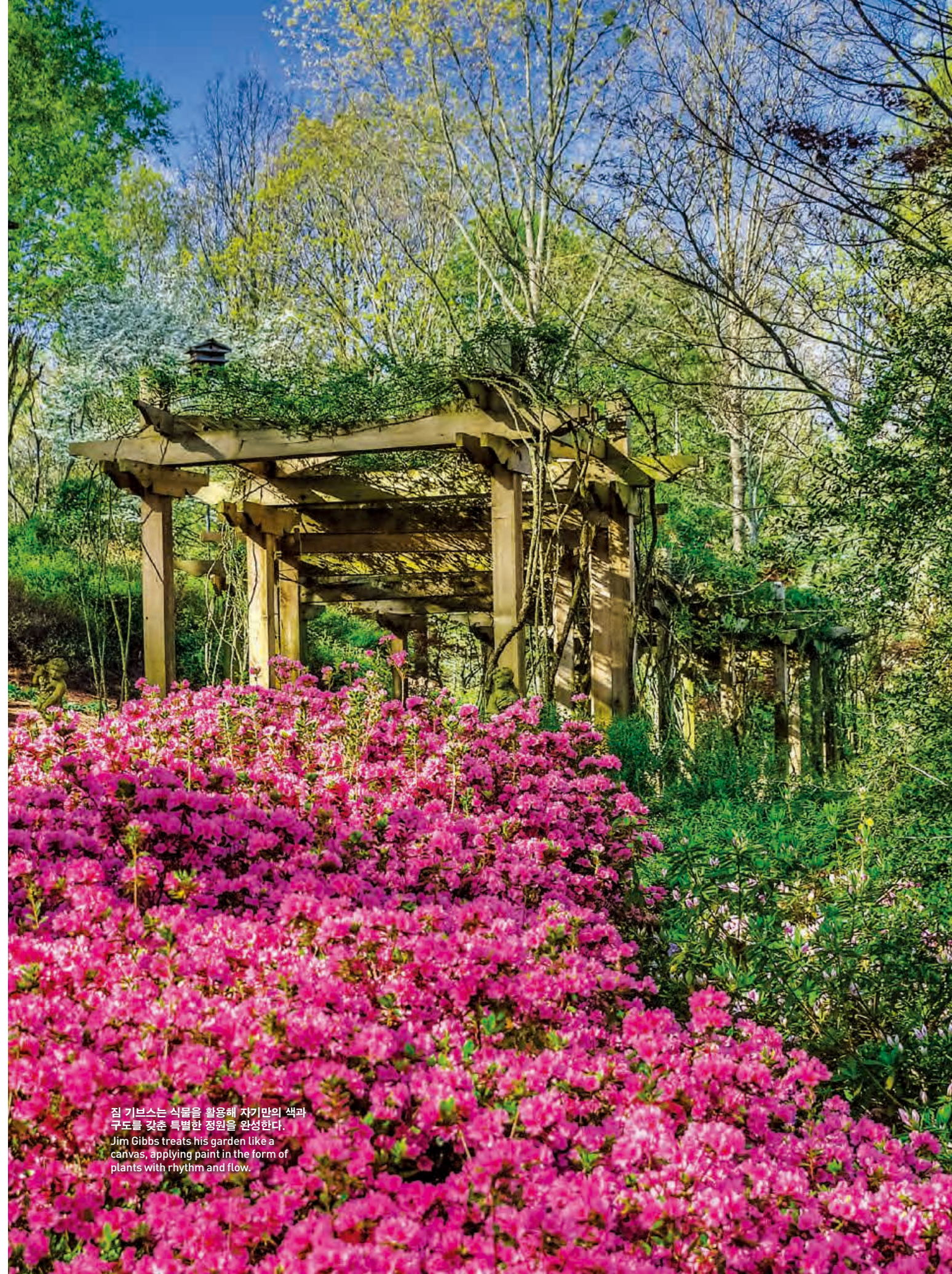
세계의 멋진 정원을 이곳에 고스란히, 본 그대로 재현한 것만은 아니다. 기브스는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창조적으로 해석, 자신의 정원을 조정하는 데 참조한다. 대표적인 예로 저택 뒤편의 베란다에 서면 아래쪽 ‘밸리 정원’과 함께 멀리 수목 한계선이 내다보이고, 그 너머로 해발 1000여 미터의 오글소프산을 조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브스는 영국 웨일스의 ‘보드넌트 정원’을 방문했을 때 건너편 스노도니아 국립 공원의 구릉지 풍경을 보고 난 뒤 산이 바라다보이는 조경을 늘 염두에 두고 정원 설계에 이를 반영했다. “여기서 감상하는 블루리지산맥의 오글소프산이 훨씬 더 예쁘죠. 그곳도 아름답긴 하지만요.”

Spring comes early to the northern mountains in the US state of Georgia, but nowhere with quite the same verve as Gibbs Gardens, a 1.2sqkm property in the foothills of the Blue Ridge Mountains. The garden heralds the season joyously, as some 20 million daffodils dapple the shallow hills with cream and gold. The late bloomers stay on through mid-April, when other plants begin competing for attention: native dogwoods, quince, crabapple trees, hundreds of azaleas and clusters of mountain laurel nodding among the ferns.

Around the garden, serpentine walkways meander past bridges and streams, each bend unfolding another picturesque view. It reminds you of a painting — trees reflected in still ponds, rows of brilliant perennials, balanced asymmetry. “I wanted to create a pleasure garden. I’m like an artist that takes a canvas and applies paint ... the plants have a rhythm and flow to them,” explains owner Jim Gibbs, who traveled the world studying famous gardens before designing his own. “I knew it would take me about 30 years once I found the right property, but I knew the secret was to find the right property.”

In 1980, Gibbs found it in Ball Ground, Georgia, a rural town of some 2,000 residents less than an hour north of Atlanta. The topography has spring-fed water, elevation and mature woodlands, all elements Gibbs knew he needed. For the next three decades he developed the land, drawing inspiration from his travels. A wisteria-draped replica of the bridge at Monet’s house in Giverny graces the water lily pond. The 162,000sqm Japanese garden, Tsukiyama, said to be the largest in the country, harmonizes rock and water with pagodas, stone lanterns, a zigzag bridge and abundant maple and cherry trees.

Not all the international influences are as pointed. Standing on the veranda at the back of the house, you can see the Valley Gardens below, the tree line in the distance and, beyond that, Mount Oglethorpe rising over 1,000m. Gibbs got the idea to build an overlook facing the mountain when he visited Bodnant Garden in Wales, which has views of the Snowdonian foothills. “Not as pretty as our view of Mount Oglethorpe in the Blue Ridge Mountains,” he says, “but it’s beautiful.”



짐 기브스는 식물을 활용해 자기만의 색과 구도를 갖춘 특별한 정원을 완성한다. Jim Gibbs treats his garden like a canvas, applying paint in the form of plants with rhythm and flow.





“기브스의 영국식 저택은 부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언덕을 따라 조성된 정원이 저택 앞에서 만난다.”

Gibbs' English-style manor house is perche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grounds, above seven terraces of gardens that rise to meet it.”





조각상이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고  
벤치는 정원 풍경을 감상하기에 완벽하다.  
Sculptures and gazebos add  
architectural interest, while benches  
provide spots to take in the scenery.

Photos courtesy of Gibbs Gardens

**현재 진행형 정원** 영국식 저택은 부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언덕을 따라 조성된 정원 위에 자리한 저택의 뒤뜰에서는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는 풍경이 내려다보인다. 이 언덕 꼭대기에서는 어느 오솔길로 들어서든 정원을 누비며 감상할 수 있다. 어떤 길은 펜지, 수선화, 여러해살이 식물이 만발한 침상원(沈床園)으로 이어지고, 어떤 길로 가면 향긋한 꽃잎이 발밑에 깔린 장미꽃 덩굴시렁 밑을 지나게 된다. 붓꽃과 덩굴장미로 장식된 연철 소재의 문으로 이어지는 길도 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풀장이 설치된 파티오가 나온다. 여러 개의 안락의자와 함께 화분과 화단, 걸이형 바구니 등 어디에나 꽃이 피어 있는 석조 풀장은 폭포 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한 공간이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기브스와 그의 아내가 사는 집이 나온다. “누구나 파티오에 와서 이곳에 사는 우리와 똑같이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브스의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기브스의 삶의 원칙이자 꿈이었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땅이 더 남아 있으니 앞으로 이를 정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원사의 정원에는 완성이란 것이 없죠.” 기브스가 재치 있게 덧붙였다. 지난해 그는 400그루가 넘는 키 작은 침엽수를 심었고, 다음 계획은 개울가에 ‘나비 정원’을 꾸미는 것이다. 개울물이 칼미아 군락 사이를 흐르면서, 수면 위에 떨어진 연분홍 꽃잎을 계속 아래로 실어 나르는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조경이 마무리된 곳은 89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정원과 바깥 세계 사이에는 울창한 삼림이 완충 지대로 남아 있다.

현재는 16가지 테마의 정원이 조성된 상태다. 넓은 잔디밭과 나무, 연못, 정자로 구성된 ‘플레전스’처럼 자연미를 살린 공간도 있고, ‘손주들의 조각 정원’처럼 예술성에 초점을 둔 공간도 있다. 조각 정원에는 플루트를 연주하는 아이, 바다거북에 올라탄 아이, 책을 읽는 아이, 물고기를 잡는 아이 등 10개 남짓한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다. 또 쓰키야마 정원 입구에 세워진 문과 정자, 조각품은 일본풍 건축 미학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곳곳에 신중하게 배치한 나무 벤치는 편히 앉아서 경치를 눈에 담을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 준다.

땅이 지닌 뿌리를 존중하고, 가능하면 작은 손길만 더할 뿐 그 어느 것도 덜어내지 않는 원칙은 기브스 정원의 진정한 매력이다. “이 정원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 조성한 공간입니다. 저는 여기에 인간의 예술성을 조금 가미할 뿐, 그 어느 것도 훼손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를 보고 ‘정말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곳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전 이 아름다운 자연에 과도하게 개입할 생각이 추호도 없거든요. 그게 기브스 정원의 비밀이라면 비밀이죠.” 🌿 글 세릴 로드윅 사진 릭 캐논

**NEVER COMPLETE** The English-style manor house sits near the highest point on the grounds. Seven terraces of gardens rise to meet it, a glorious backyard whose layers of color change with the seasons. Paths to the hilltop mansion weave among the landscaping. One passes by the sunken garden, planted with a rainbow of pansies, daffodils and spring perennials. Another curves beneath a rose arbor, where fragrant petals blanket the walkway. Still another leads to a wrought-iron gate, decorated with irises and climbing roses, that opens onto the poolside patio. The stone-edged pool is a tranquil space, with the sound of waterfalls, plenty of lounge chairs and flowers everywhere — in pots, beds and hanging baskets.

From there, it’s a short walk to the house, where Gibbs lives with his wife. Although their home is private, the gardens are open to visitors. “The public can come and sit on the patio and view the gardens just like we do,” he says. That was always part of the plan — to build something to share with others, and Gibbs isn’t finished yet. “We also have additional property that I’ll be developing into future gardens. A gardener’s garden is never complete,” he quips. Last year, he installed more than 400 dwarf conifers. Up next is a new butterfly garden, planned near a stream that winds through gnarled trunks of mountain laurel.

At present, the 16 themed gardens vary from naturalistic, like the Pleasance, with its open lawns, trees, ponds and gazebo, to more art-focused spaces, like the Grandchildren’s Sculpture Garden, where nearly a dozen statues of children cavort — playing a flute, riding a sea turtle, reading, fishing. Sculptures, gazebos and gates, such as the torii at the entrance to Tsukiyama, add architectural interest, while wooden benches, strategically positioned, provide spots to rest and take in the scenery.

That’s the real charm of the garden, a design that respects the land, adding to it where possible, taking nothing away. “The garden is a beautiful natural site, and I’ve combined it with the artistry of man, but I don’t want to destroy anything,” says Gibbs. “If I look at an area and say, ‘I can’t improve on that,’ I don’t do anything with it. We can’t ever lose the beauty of nature here. That’s the secret of Gibbs Gardens.” 🌿 By Cheryl Rodewig Photographs by Rick Cannon





“기브스의 정원은 잔디밭, 연못 등  
자연미를 살린 공간부터 예술 친화적  
공간까지 총 16개 주제로 조성되었다

The 16 themed gardens vary from  
naturalistic, with open lawns,  
trees, ponds and gazebos, to more  
art-focused spaces.”